

A2002 혼합1형(연금)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기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혼합1형(연금)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탁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사는 신한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펀드명칭	혼합1형(연금)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44704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추가형 일반형	최초설정일	2004.05.25
운용기간	2021.01.01 ~ 2021.03.31	존속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우리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제한된 주식투자로부터 부분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며, 주로 국공채, 특수채, 그리고 제한된 수량의 우량등급의 회사채에 투자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자본 이득과 이자 수익을 달성함에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은 초과수익을 위한 여러 요인들(듀레이션, 수익률선, 신용, 고평가/저평가 분석 등을 활용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백만원,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혼합1형(연금)	자산 총액 (A)	15,969	15,747	-1.39
	부채 총액 (B)	55	137	148.95
	순자산총액 (C=A-B)	15,914	15,610	-1.91
	발행 수익증권 총수 (D)	8,395	8,128	-3.18
	기준가격 (E=C/D × 1000)	1,895.55	1,920.52	1.32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행투자증권을 입금할 때,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액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주식부문] 지난 3개월간 코스피는 6.5% 상승한 3,061.4p로 마감했습니다. 1월 시장은 연초호과 위주 빠른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중시 전반적인 과열 우려와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봉쇄조치 재개, 변이 이슈, 미국 장기금리 상승, 중국 긴축 리스크 등의 이슈가 하락 변동성을 확대, 월중 상승폭을 상당분 반납했습니다. 2월 백신 선두 접종 국가와 북반구 주요국에서 신규확진자가 빠르게 감소, 정상화 기대감이 상승하며 위험자산 강세가 지속되었으나, 전월에 이어 미국 장기금리 상승세가 가속화되며 재차 중시 변동성이 촉발되었으며, 3월 들어서는 미국 금리와 달러가 동반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 중시는 제한적 반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수급측면에서는 개인이 37.4조를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8.3조, 28.2조를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비금융, 섬유 의복, 운수장고업종이 시장 상위, 의약품, 전기기기, 전기전자업종이 하위였습니다. 1분기 펀드는 의약품업종에 대한 낮은 투자비중과 기금유동, 운송장비에 대한 높은 투자비중에 긍정적인 성과로 작용하였고, 종목별로는 SK하이닉스, NAVER, 카카오 등이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반면 KOSDAQ에 대한 투자 및 서비스, 기계, 비금융업종에 대한 낮은 투자비중, 그리고 종목별로는 삼성전자, 엔씨소프트, LG화학 등의 종목선정이 성과에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채권부문] 1분기 채권시장은 1)美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부양책 규모를 크게 확대(1.3~2.0조달러)하겠다는 언급과 2)코로나19 지원금 법제화 방안이 추진됨에 따른 국고채 공급 부담이 재부각되면서 장기를 위주 비중이 출발하였습니다. 이후 지표 호조 및 경기 부양 규모 확대에 따른 美 국채금리 등등과 재산 지원금 규모 확대 논의에 따른 공급증가 우려 확대로 인하여 국고채 금리 상승폭은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분기 말, 1)한은의 추가 국고채 매입 언급, 2)기재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 그리고 3)높은 채권가격 메리트에 따른 저가매수세 유입 등으로 금리 상승폭을 다소 축소하기도 하였지만 지속되는 외국인 선물 매도 등으로 약세 흐름을 지속하며 마감하였습니다. 1분기 중 전 구간 금리가 상승하였으며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됨에 따라 듀레이션 및 커브 전략은 펀드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하지만 2.5년 이하 여전 채 위주로 크레딧 스프레드가 축소되었으며, 물가채 역시 강세를 보임에 따라 섹터 전략 및 중점 전략이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분기 성과는 벤치마크보다 양호한 성과를 시현하였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주식부문] 매크로 측면에서는 미국 금리/달러 측면 비우호적 환경이 지속될 전망이며, 중기 펀드멘탈에 대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3월 중 미국 10년물 금리가 1.7%를 상회했으며, 또한 전월까지의 양상과 달리 달러 또한 대부분의 통화에 대해 차별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위같은 매크로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바, 단기적으로 금리/달러 측면에서 국내시장으로서는 비우호적 투자 환경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는 펀드멘탈 측면에서도 조정요인으로 작용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단, 지난 달 수출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되었고, 미국 10년 국채 금리 상승세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증시의 하락리스크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업종별로는 제품가격 상승세가 가속화 확인되고 있는 반도체 및 IT 대형주에 대한 비중확대전략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반면 2차전지 관련주는 비중축소 대응하는 한편, 태양광 등 미국 정책 수혜주를 비중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외 경기회복 관점에서 화학/철강 등 소재주 및 은행/증권업종을, 그리고 현대차그룹에 대한 개별 분석 관점에서 자동차업종 비중확대 전략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반면 밸류에이션 매력 및 업황 모멘텀이 부재하는 제약바이오, 통신, 유통/리테일업종에 대해서는 비중축소 대응하고자 합니다.

[채권부문] 2분기 채권 시장은 공급불확실성 해소, 가격메리트 등의 강세요인과 경기회복, 인플레이션 우려, 추가 추경가능성 등의 약세 요인이 상존하면서 국고채 3년 1.05%~1.30%, 5년 1.35%~1.80%, 10년 1.85%~2.30%의 레인지 속에 보험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난 1분기 국내 채권시장 금리 상승의 주요 요인이었던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확정되면서 공급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정책당국의 채권시장 안정화 의지를 감안할 때, 공급관련 불확실성은 현재 채권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어 추가로 금리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제한된 통화정책 여력과 내년 대선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추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은 채권 시장에 지속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2분기 듀레이션은 변동성을 이용한 레인지 트레이딩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국고 3년물 기준 1.10% 하회시 듀레이션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1.20% 상회시 듀레이션을 점진적으로 늘릴 것이며, 빠른 대응을 위하여 국고 3년 지표물 또는 국채선물을 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장단기 스프레드가 90bp 수준이며 가격 메리트가 높은 상황이거나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해, 커브 플레이트를 포지션을 구축하더라도 10년 구간보다는 5년 구간 만기 위주로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단기간 확대되었던 크레딧 스프레드는 2분기 중 축소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전채의 비중은 유지하되 만기별 구간 교체매매를 계획 중이며, 회사채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정 폭이 컸던 3년 위주 상위등급 회사채 위주로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물가채의 경우 현재의 비중을 유지하며 원활한 유동성을 위하여 지표물로 교체 할 계획입니다.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혼합1형(연금)	1.32	6.87	10.76	16.39
(비교지수 대비 성과)	(0.31)	(0.94)	(1.72)	(1.18)
비교지수(벤치마크)	1.01	5.93	9.04	15.21

* 비교지수(벤치마크): KIS종합채권지수 X 65% + KOSPI X 25% + CALL X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혼합1형(연금)	16.39	12.74	10.25	16.31
(비교지수 대비 성과)	(1.18)	(0.34)	(-1.64)	(-3.15)
비교지수(벤치마크)	15.21	12.40	11.89	19.46

* 비교지수(벤치마크): KIS종합채권지수 X 65% + KOSPI X 25% + CALL X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전기	984	-100	0	0	24	0	0	0	0	1	-67	841
당기	374	-117	0	0	20	0	0	0	0	0	-64	214

3. 자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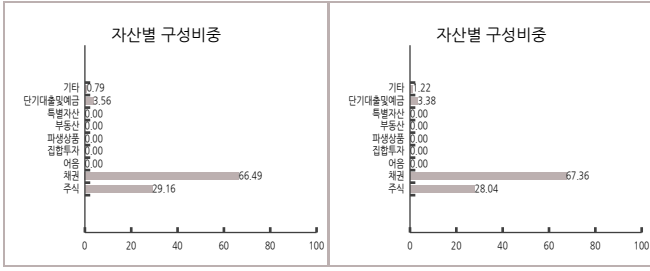
▶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4,416	10,607	0	0	0	0	0	0	0	532	192	15,747
(1.00)	(28.04)	(67.3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38)	(1.22)	(100.00)
합계	4,416	10,607	0	0	0	0	0	0	0	532	192	15,747

(*) : 구성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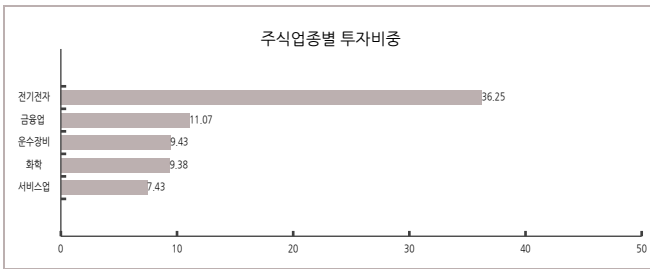
전기	당기
----	----



▶ **주식업종별 투자비중**

(단위: %)

업종명	비중	업종명	비중
1 전기전자	36.25	6 건설업	3.54
2 금융업	11.07	7 유통업	3.22
3 운수장비	9.43	8 의약품	3.17
4 화학	9.38	9 철강및금속	2.65
5 서비스업	7.43	10 기타	13.86



※ 위 업종구분은 한국거래소의 업종구분을 따릅니다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채권	국고02375-2812(18-10)	11.60	6 채권	케이비캐피탈432-3	3.20
2 주식	삼성전자	6.84	7 채권	하나은행43-07기3간-30	3.17
3 채권	국고1500-5003(20-2)	6.01	8 채권	국고00875-2312(20-8)	3.16
4 채권	통안1030-2204-02	5.11	9 채권	BK캐피탈198-1	2.57
5 채권	8우리카피탈394-4	3.22	10 채권	하나금융투자5-2	2.56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주식**

(단위: 주, 백만원, %)

종목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중	발행국가	통화	업종	비고
삼성전자	13,237	1,077	6.84	대한민국	KRW	전기전자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초과 종목

▶ **채권**

(단위: 백만원, %)

종목명	액면가액	평가액	발행국가	통화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중
국고02375-2812(18-10)	1,750	1,827	대한민국	KRW	2018-12-10	2028-12-10		N/A	11.60
국고1500-5003(20-2)	1,100	946	대한민국	KRW	2020-03-10	2050-03-10		N/A	6.01
통안1030-2204-02	800	805	대한민국	KRW	2020-04-02	2022-04-02		N/A	5.11
8우리카피탈394-4	500	507	대한민국	KRW	2020-01-22	2023-07-21		AA-	3.22
케이비캐피탈432-3	500	504	대한민국	KRW	2019-08-02	2022-08-02		AA-	3.20
하나은행43-07기3간-30	500	499	대한민국	KRW	2020-07-30	2023-07-30		AAA	3.17
국고00875-2312(20-8)	500	498	대한민국	KRW	2020-12-10	2023-12-10		N/A	3.16
BK캐피탈198-1	400	404	대한민국	KRW	2020-02-07	2023-02-07		AA-	2.57
하나금융투자5-2	400	402	대한민국	KRW	2020-09-01	2023-09-01		AAO	2.56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성명	직위	나이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최미영	부사장	42	81	2,597,437	-	-	2119000125
이대석	차장	39	81	2,597,437	-	-	2120001220

김태현	과장	38	81	2,597,437	-	-	2119000109
-----	----	----	----	-----------	---	---	------------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현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9.01.25 ~ 현재	최미영
2020.09.17 ~ 현재	이대석
2019.01.24 ~ 현재	김태현
2019.01.24 ~ 2021.03.23	최명혁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4	0.03	4	0.02	
판매회사	26	0.17	26	0.16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1	0.00	1	0.00	
보수합계	31	0.20	31	0.19	
기타비용	0	0.00	0	0.00	
매매 증개수수료	단순매매 증개수수료	4	0.02	3	0.02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	0	0.00
	합계	4	0.02	3	0.02
증권거래세	6	0.04	5	0.03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 증개수수료는 제외합니다.

※ 성과보수내역: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연환산, %)

	총보수·비용비율(A)	매매·증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7915	0.1018	0.8933
당기	0.7893	0.0916	0.8809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증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증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증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6. **투자자산매매내역**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단위: 백만원, %)

매수		매도		매매 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해당기간	연환산
33,022	1,626	37,631	2,196	49.96	202.64

※ 매매회전율이란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금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매매회전율이 높을수록 매매거래수수료(0.1% 내외) 및 증권거래세(매도시 0.3%) 발생으로 실제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펀드비용이 증가합니다.

▶ **최근 3분기 매매회전율 추이**

(단위: %)

2020-07-01 ~ 2020-09-30	2020-10-01 ~ 2020-12-31	2021-01-01 ~ 2021-03-31
44.12	55.29	49.96